

보도자료

2010년 5월 24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지원과 송상훈 과장(☎750-1480)
디지털방송지원과 김광의 연구사(☎750-1486) kcap@kcc.go.kr

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본궤도

- 울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D-100일 -

방송통신위원회(최시중 위원장)는 울진지역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D-100일 기해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달만에 정부 지원 대상 중 40%이상 세대들에게 디지털 컨버터가 보급되는 등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.

아울러 5월말부터는 울진, 강진, 단양 등 시범지역에서 보급형 디지털 TV 판매가 개시된다. 특히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방송을 시청하는 저소득층 대상에게는 디지털 TV 구매비용(10만원)을 보조할 예정이다.

강진, 단양지역에서도 디지털 컨버터 등 정부지원 신청 접수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, 디지털 TV방송이 개시되는 6월 이후부터는 디지털 컨버터 보급과 설치·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.

방통위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최초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(울진 9월 1일, 강진 10월 6일, 단양 11월 3일)되는 시범지역 주민들이 고화질의 디지털 TV방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송사와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. 끝.